



보도일시	배포 후 즉시 사용	배포일시	2021.9.27. (월) 배포
담당	국무조정실 기획총괄정책관실	과장 서영석, 사무관 김지현 (044-200-2048, 2049)	

## “ 단계적 일상 회복을 최대한 앞당길 수 있도록 추석 연휴 이후 확진자 증가상황의 조기 안정화에 총력 대응 ”

- ① 문 대통령-김 총리, 주례회동에서 코로나 19 방역상황 등 현안 논의
- ② 총리 중심 (가칭) ‘코로나19 일상회복위원회’ 구성, ‘실천 로드맵’ 마련
- ③ 2차 백신접종 속도를 높이고, 미예약자 참여율 향상에 총력 집중
- ④ 유기 반려동물 관리 개선 관련, 문 대통령 “개 식용화 금지 검토할 때”

- 김부겸 국무총리는 9월 27일(월), 청와대에서 문재인 대통령과 주례 회동을 가졌습니다.
- 이 자리에서 문 대통령과 김 총리는 추석 연휴와 그 이후 코로나19 대응에 대해 의견을 나눴습니다.
  - 먼저 김부겸 국무총리는 “4차 대유행 이후 숨은 감염원이 지역 사회에 누적됐고, 여름 휴가철과 추석 연휴를 계기로 이동과 모임이 늘면서 확진자 수가 증가하는 것으로 보인다”라고 했습니다.
  - 이어 김 총리는 “단계적 일상 회복을 최대한 당기기 위해서는 추석 연휴 이후의 확진자 증가를 최대한 빠르게 안정시키는 것이 관건 이므로 진단검사 확대 등 확산 차단에 총력을 다하겠다”라고 보고 했습니다.
  - 특히, 김 총리는 “국민께서 적극적으로 협조해 주신 덕분에 추석 초 국민 70% 1차 접종 목표를 무난히 달성했다”라고 하면서, “10월 중 초 국민 70% 2차 접종 목표도 최대한 조기 달성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으며, 백신 물량도 충분히 확보됐다”라고 했습니다.

- 또한, 김 총리는 수용성 있는 단계적 일상 회복 방안 마련을 위해서는 지금부터 철저한 준비가 필요하며, 이를 위해 총리 중심으로 (가칭) '코로나19 일상회복위원회'를 구성해 국민 여론을 듣고 10월 중 실천 로드맵을 만들도록 하겠다고 보고했습니다.
- 이에 대해 문 대통령은 “추석 연휴 이동량이 늘어나 확진자 수가 증가하고 있는 지금이 방역의 중대한 기로이며, 단계적 일상 회복의 조기 달성을 위해서는 현재 상황의 안정화가 관건이므로 총리를 중심으로 정부 전체가 방역 대응에 총력을 다해 달라”라고 당부했습니다.
- 또한, “확진자 급증에 따른 의료 대응에 지장이 없도록 생활치료센터와 병상 확보 문제를 관계 부처와 지자체가 각별하게 챙겨달라”라고 말했습니다.
- 특히, 문 대통령은 추석 연휴 이후 많은 국민이 자발적 코로나19 검사를 통해 방역상황 조기 안정화에 동참하고 있는데 대해 감사의 마음을 전했습니다.
- 또한, 문 대통령과 김 총리는 단계적 일상 회복의 조기 전환을 위해 2차 백신접종의 속도를 높이는 것과 함께, 아직도 550만 명에 달하는 백신 미예약 국민의 참여를 끌어내는 데도 총력을 다해 나가기로 했습니다.
- 한편, 김 총리는 유기 반려동물 관리체계 개선과 관련하여 △반려동물 등록률 제고 △실외 사육견 중성화 사업 추진 △위탁 동물보호센터 전수 점검 및 관리·감독 강화 △민간 보호시설 신고제 도입 △동물보호 관리시스템 내실화 등을 추진하겠다고 보고했습니다.
- 이에 대해 문 대통령은 “이제는 개 식용 금지를 신중하게 검토할 때가 되지 않았는가”라며, “관계 부처에서 검토해달라”라고 말했습니다.
- ‘유기 반려동물 관리체계 개선방안’은 9.30 총리 주재 ‘국정현안 점검조정회의’에서 논의 후 확정·발표할 예정입니다.